

전북연구원 보도자료 아름다운 山河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, 천년 전북!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▪ **문 의** : 지역개발연구부 이성재 연구위원
(063-280-7153)

▪ **담당실장**: 연구본부장 김진석 선임연구위원
(063-280-7111)

보도시점 : 2018년 08월 09일(목)부터

국토 균형발전 상징, 동서내륙경제벨트부터 시작해야

동서내륙경제벨트 추진방향과 세부계획 제시

-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균형발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전북과 경상도를 연계하는 '동서내륙경제벨트' 추진을 위한 방향이 제안됐다.
- 전북연구원(원장 김선기)은 최근 이슈브리핑(통권 176호) '국토 균형발전 상징, 동서내륙경제벨트부터 시작해야'를 통해 국가발전의 축을 전환하고,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하여 동서화합 및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동서내륙경제벨트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.
- 그동안 국토발전 축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(1972~1981)에서 제시된 경부축 중심의 개발, 제2차 계획(1982~1991)의 수도권 집중 억제, 제3차 계획(1992~2000)의 지역거점 개발을 거쳐 제4차 국토종합계획(2000~2020)에서는 개방형 국토축 외에 중부내륙축, 남부내륙축이 강조되었다.
- 그러나 이명박·박근혜 정권시기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 수정계획(2006년, 2011년)에서는 균형발전 정책이 쇠퇴하고 동서를 연계하는 내륙축이 제외되었다.

- 최근들어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상생발전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국토 발전 축으로 동서내륙축의 재설정 필요하다는 주장이다.
- 이성재 연구위원 등은 동서내륙경제벨트의 기본방향으로 환동해·환황해 경제벨트의 거점화, 주력산업 연계·협력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, 인프라 확충으로 국토 내륙 연계 및 물류체계 효율화를 제시하였다.
- 또한, 세부계획으로 홀로그램 콘텐츠 산업, 항노화(헬스케어) 산업, 해상풍력 산업 등의 산업벨트, 가야 역사문화와 동학농민혁명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벨트,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백두대간 생태벨리, 스마트 물류기지, 철도 및 고속도로 등 광역 SOC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시 동서를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국토 내륙의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.
-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광역자치단체들은 한반도 허리벨트, 남부경제권, 강호축 등을 주장하고 있다. 전북연구원이 제시한 동서내륙경제벨트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를 통해 전북발전의 성장 축을 외적으로 확대하고, 동서 상생발전과 국토 내륙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국토발전 축으로 자리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.

<동서내륙경제벨트 구상도>

